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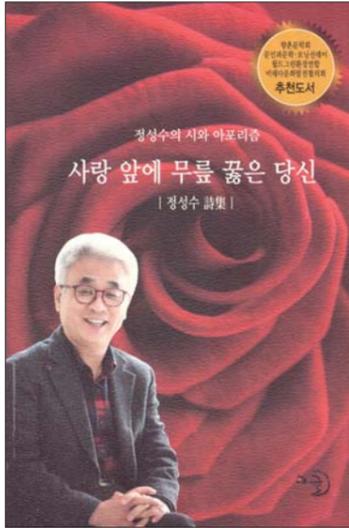
“시는 슬픔까지 안아 주는 넓은 가슴”

중견 시인 정성수씨 22번째 시집 시와 아포리즘 ‘사랑 앞에 무릎 꿇은 당신’ 출간 화제

중견 시인 정성수씨가 22번째 시집 시와 아포리즘 ‘사랑 앞에 무릎 꿇은 당신(도서출판 고글)’을 출간해 화제다. 시집은 시 92편을 4부로 묶었으며 사랑이 주제다. 시들은 대등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성간의 사랑, 자기사랑, 신에 대한 사랑까지 포함했다. 정성수 씨는 “시는 삶을 위로해 주며 슬픔까지 안아 주는 넓은 가슴인 동시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무너진 관계를 다시 이어 줄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버팀목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표사에서 이준관 시인은 “정성수의 시집 ‘시와 아포리즘’에는 인생의 진리를 터득한 현자의 목소리가 있다. 그가 들려주는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삶의 지혜를 얻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위로를 받는다”고 전했다. 또한 “그의 시는 삶의 체험에서 우러나온 것이기에 깊은



감동과 울림이 있다. 며칠이고 꼭 고아서 맛과 영양이 진한 곰국처럼 심오한 삶의 품이가 있다”고 말했다. 전 전주교육대학교 총장 유광찬 수필가는 “정성수시인의 시집 ‘사랑 앞에 무릎 꿇은 당신’에는 삶의 우물에서 건져 올린 시들이 도처에서 빛을 발하며, 사랑이 인생의 꽃이라면 꽃 한 송이 피우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성수 시인은 그 동안 출간한 책으로는 시집 공든 탑 등 22권, 시곡집 인연 등 6권, 동시집 햇빛과 도토리 등 9권, 동시곡집 참새들이 짹짹 등 8권, 장편동화 페안 길린 호랑이 외 실용서, 산문집, 논술서 등 57권이 있다. 수상은 세종문화상, 소월시문학대상, 웰드그린문학대상, 매일신문시니어문학상, 대한민국 환경문화대상, 가이아국제문화문학대상, 공무원예대전시부문학우수상 및 동시부문학우수상, 아르코문학창작기금수혜 외 다수가 있으며, 현재 향촌문화회장, 사미레디문화발전협의회장, 문인과 문화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장은성기자



공연장 상주단체 전북발레시어터의 ‘오즈의 마법사 도로시의 모험’ 공연.

전북발레시어터, 내달 17일 ‘오즈의 마법사 도로시의 모험’ 공연

공연장 상주단체 전북발레시어터(대표 박진서)가 5월 17일 금요일 저녁 6시30분 정읍시 예술회관에서 ‘오즈의 마법사 도로시의 모험’ 공연을 올린다. 오즈의 마법사 도로시의 모험은 회오리바람에 날려 마법사의 나라에 떨어진 도로시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마법사 오즈를 찾아 나서는 내용이다. 이를 발레 퍼포먼스 등 다양한 볼거리로 구성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상주단체의 역량과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수권을 보장하여,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첫 공연인 ‘두꺼비

선생님과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발레이야기(이하 발레이야기)가 열렸다. 발레이야기 공연은 400여명의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해 배우는 발레 체험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발레에 생소한 아이들에게 무대 현장에서 직접 배우고 따라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특히 교육, 체험과 함께 발레와 한국무용의 공연 관람도 함께 진행돼 더욱 이해하고 친근한 상태에서 감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오즈의 마법사 도로시의 모험’ 공연 티켓 판매가격은 1만원이다. 정읍 시민들에게는 50% 할인된 5000원에 판매된다. /정은성 기자

한 푼짜리 웃음을 팔고, 서푼짜리 한숨을 샀던 여인의 사랑과 절개

완주군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내일부터 기생 기획전시 개최



완주군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에서 기생 기획전시가 열린다.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은 오는 6일부터 9월 말일까지 춤과 노래, 기예로 연희의 흥을 돋우던 기생을 주제로 한 ‘나비와 꽃이 된 술잔 속 기생’ 기획전시를 연다고 4일 밝혔다. 기생은 국가 행사나 공연, 관가의 연희, 사대부들의 잔치자리 등에 참석해 아름다운 용모와 하늘거리는 춤사위로 분위기를 띄우고 권주가로 귀를 즐겁게 하던 술자리의 꽃이었다. 특히 기생들의 재치 있는 말솜씨와 학문적 지식은 사대부들과 문장이나 시조를 겨룰 정도여서 이들을 ‘해어화’, 즉 말을 알아듣는 꽃이라 달리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일제에 의한 조선 식민화 과정에서 왕실과 관아 소속 관기들이 해체되고, 이들을 저급한 창기들과 같은 부류로 단속하면서 전통예악문화를 계승해왔던 기생의 이미지는 못 남는들에게 성적 대상으로 왜곡되고 굴러지게 됐다. 이번 ‘나비와 꽃이 된 술잔 속 기생’ 전시는 한 푼짜리 웃음을 팔고, 서푼짜리 한숨

을 샀던 조선시대 기생들의 사랑과 절개, 신분의 굴레를 쓴 여성으로서의 회환을 비롯해 근대 대중문화를 이끈 연예인으로 이어지는 흐름까지 포괄적으로 담아낸다. 전시 유물로는 정조의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잔치 속 화려한 궁중무를 볼 수 있는 보물 제1430-2호 <봉수당진전도>, 김홍도가 그렸다 전해오는 <평안감사향연도>, 일제가 만세운동을 벌인 기생에게 내린 <보안법 위반 판결문> 및 수십 장의 <권번 기생 사진> 등을 볼 수 있다. 또한 기생으로부터 비롯된 ‘머리올리다’, ‘기동서방’, ‘기생하면 평양기생’과 같은 호기심을 이끄는 문화사적 내용들이 설명

패널에 담겨 재미를 더한다. 전영선 문화관광과장은 “일제강점기 성적 대상으로 왜곡된 기생을 바로알고 전통 예악문화를 계승해 온 기생의 이모저모를 술 문화와 함께 알아볼 수 있는 전시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에서는 이번 전시 이벤트로 5월 주말 <권번 기생 특강>과 함께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민살풀이춤> 공연, <해어화> 연극 등을 부대행사로 진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일정은 박물관 홈페이지(<http://sulmuseum.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원주=이종복기자

‘편지는 누구에게나 문학적 표현의 첫 무대’

오늘부터 국립전주박물관 특별전
‘선비, 글을 넘어 마음을 전하다’

국립전주박물관(관장 천진기)은 오늘부터 6월 9일까지 특별전 ‘선비, 글을 넘어 마음을 전하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전은 조선시대 선비들의 편지글을 통해 선비들의 다양한 감정표현과 인간적인 면모를 살펴보는 전시다. 특히 조선 선비들의 애절한 우정을 보여주는 ‘담헌서첩(澹軒書牋)’, 정약용의 아이들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는 ‘하회첩(보물 제 1683-2호)과 ‘매화병제도梅花并題圖’, 박지원의 가족에 대한 자상함이 엿보이는 ‘연암선생서간첩(燕巖先生書牋帖)’ 등 총 70여 점의 편지글이 전시된다. 전시는 크게 2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선비의 우정을 담은 편지를, 2부에서는 선비의 애정을 담은 편지를 만나볼 수 있다. 1부에서는 조선시대 선비들의 다양한 우정의 세계와 척득(짧은 편지), 중국 문인과의

교류 편지를 살펴볼 수 있으며, 2부에서는 조선 선비의 아버지로서의 면모와 아내에 대한 곡진한 애정을 엿볼 수 있다. 동시에 선비의 편지 내용을 이야기 형식으로 만나볼 수 있는 영상, 선비의 편지를 대화 형식으로 만나볼 수 있는 콘텐츠, 선비의 편지를 책으로 만나볼 수 있는 체험 등이 마련돼 관람객에게 선비의 편지를 더 쉽게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전주박물관 관계자는 “조선은 문장 하나에도 도도를 담아야 했을 정도로 감정 표현에 엄격한 사회였다. 그러나 개인적인 기록물이었던 편지는 우리가 ‘고고하다’고만 생각했던 선비의 다양한 감정과 함께 인간적인 면모를 담고 있다”며, “이번 전시에서 편지를 통해 과거 선비와 현대인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전주박물관은 ‘조선 선비문화’를 특성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편지를 통해 선비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를 마련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